

임실군, 과수 탄저병 대응 총력

순창군, 재난안전관리 역량 입증

중점관리기간 운영

임실군이 최근 여름철 특유의 고온다습한 날씨와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복숭아, 사과 등 주요 과수 농가의 최대 적인 탄저병 발생과 확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탄저병 중점관리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강수일수가 증가하면서 과수 탄저병의 발생 시기와 강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불규칙해진 상태다.

특히 감염 이후의 확산 속도 또한 감속할 수 없이 빨라지고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와 선제적 방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군은 탄저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주요 과수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과원'을 별도 지정했다. 전문 지도사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탄저병 발생 초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임실군이 복숭아, 사과 등 주요 과수 농가의 탄저병 발생과 확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탄저병 중점관리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근 농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가 내리기 전에 반드시 '보호용 살균제'를 살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비가 내린 직후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기존에 뿌려둔 약효가 씻겨 내려갈 수 있으므로, 비가 그친 뒤에는 반드시

이전에 살포했던 약제와 성분이 다른 계열의 '치료용 살균제'를 선택해 교호(번갈아) 살포해야만 추가적인 교차 감염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약제 방제뿐만 아니라 과수원 내 위생 관리 등 경종적 방제도 필수적이다. 매년 탄저병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수원에서는 나무에 매달린 병든 열매는 물론, 땅에 떨어진 낙과를 발견하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임실=전충영 기자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열려

남원시노인복지관서 사회 연대경제기업·관계자 참여 봉사 펼쳐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15일 남원시노인복지관(금동로 50)에서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관계자들과 함께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현장 배식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나눔 행사에 앞서 남원시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은 남원시 노인복지관과 상호 교류 및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앞으로도 이들 기관 및 기업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상호 약속했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나눔 행사에서 남원시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관계자들은 남원의 대표 사회적기업인 지리산처럼영농조합법인에서 정성껏 생산

한 보양식 제품 삼계탕을 나누며 지역 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순환 경제의 모델을 보여주는 등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협약식 이후에는 양충모 남원시장과의 점심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남원시 사회연대경제 현황과 주요 활동 성과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간단 회 기회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기업 대표들은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판로 개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이에 양충모 시장은 "남원시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명품 복숭아 홍콩 수출 선적식 가져

남원시가 15일 남원원에농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2026년 남원 복숭아 홍콩 수출 선적식'을 갖고,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된 홍콩 수출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선적식에는 양충모 남원시장, 시·도의회의원, 농협 관계자, 수출업

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 성공적인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를 기원했다.

이번 홍콩 수출은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창준)의 추진으로 남원 원에 농협, 춘향골농협, 남원농협과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와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수출 품목은 남원의 대표 복숭아 품종인 '그린황도'와 '황도'이며, 철저한 선별과 품질관리를 거친 복숭아는 오는 7월 말까지 총 15톤, 1억 5천만원 규모로 수출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순창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성과를 통해 군은 재난 예방부터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으며 지역 재난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평가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걸친 재난관리 체계와 기관의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순창군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의 재난관리 역량,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재난관리자원 관리, 재난안전교육 및 홍보,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체계적인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군은 평소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안



전관리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집중안전점검, 재난대응훈련, 재난취약시설 점검,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재난관리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풍수해와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자연재난은 물론 화재와 각종 사회재난에 대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사전 중심의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여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3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공직자와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빈틈없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순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전북자치도와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 예방 합동점검

남원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지난 14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시 가축분뇨가 하천이나 배수로 등으로 유출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내용은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의 적정 보관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가축분뇨 등 무단배출 여부 △비밀배출구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도 합동점검에서는 가축분뇨 유출 여부와 시설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했으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저소득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운영

임실군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저소득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 하는 어르신이며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눈물샘 질환 등 안과적 수술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임실군보건의료원 재택의료팀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대상자 확인 후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수술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실=전충영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이행 당부

남원시는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8,669명 중 올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212명에게 지난 6월 2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조종사의 안전 운행과 신체적 능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이행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적성검사는 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신체검사서 1부를 지참 신청하고, 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적성검사 대상자 중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입원 등 특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전국 건설기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1억6600만원 부과

순창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만 3,073건에 대해 11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